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한국계 힙합그룹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파 이스트 무브먼트〉

한국계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힙합 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Far East Movement)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은 21일 "파 이스트 무브먼트의 신곡 '라이크 어 지 식스(Like A G6)'가 이번 주 미국 빌보드의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계 가수나 뮤지션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1위 소식은 한국시간 21일 밤 또는 22일 새벽 업데이트되는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순위에서 공식 발표된다.

'파 이스트 무브먼트'는 이날 오전 자신들의 트위터에 빌보드 1위 소식을 올리며 자축했다.

이 그룹은 재미교포인 제이 스플리프(J-Splif·정재원), 프로그레스(Progress·노지환)와 일본·중국계 미국인 케브 니시(Kev Nishimura)가 로스앤젤레스의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만나 결성한 것으로, 2006년 영화 '패스트 & 퓨어스: 도쿄 드리프트'의 OST에 참여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유니버설뮤직 산하의 음반사인 '체리티/인터스코프'와 계약하고 신곡을 발표해왔다.

'파 이스트 무브먼트'는 지난 10월 2일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위에 오른 뒤 2주 만에 2위로 뛰어오르며 쾌속 질주하다 이번 주 1위에 등극했다.

'라이크 어 지 식스'의 뮤직비디오에는 한국어 가사의 식당과 소주를 마시는 장면 등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곡을 포함한 이들의 새 앨범 '프리 와어드(Free Wired)'는 오는 25일 국내 발매된다. /연합뉴스



의 OST에 참여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유니버설뮤직 산하의 음반사인 '체리티/인터스코프'와 계약하고 신곡을 발표해왔다.

'파 이스트 무브먼트'는 지난 10월 2일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위에 오른 뒤 2주 만에 2위로 뛰어오르며 쾌속 질주하다 이번 주 1위에 등극했다.

'라이크 어 지 식스'의 뮤직비디오에는 한국어 가사의 식당과 소주를 마시는 장면 등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곡을 포함한 이들의 새 앨범 '프리 와어드(Free Wired)'는 오는 25일 국내 발매된다. /연합뉴스

지진희, 차기작은 중국영화



지난주 중영한 드라마 '동이'의 스타 지진희가 차기작으로 중국 영화 '길 위에서'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지진희는 21일 "동이" 다음으로 출연할 작품은 중국 영화 '길 위에서'로, 내년 1~2월 중국에서 촬영할 예정이다"며 "원래 더 일찍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동이' 출연을 위해 촬영이 늦춰졌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지진희는 "촬영비"이나 "비포 선라이즈" 같은 멜로 영화다. 중국 영화지만 내가 연기하는 역은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여행한 한국 남자가 기차에서 중국 여성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동 줄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 온 한국인 김풍기 감독의 데뷔작으로, 중국 베이징 예술대학교에서 만든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화다.

Advertisement for '제19회 광일제' (19th Kwangilje)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a photo of a man.

Table with 2 columns: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times.

Language learning advertisement for 'Get on with what you're doing' featuring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text.

Advertisement fo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numbers.